

2008 포천 Law-School 운영

포천시, 공정한 행정 · 법률생활화 위해



포천시는 공무원 및 시민대상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령 운용능력 증대를 통한 공정한 행정처분을 도모하고 시민(단체)의 법률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 포천 Law-School을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공무원 및 시민대상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령 운용능력 증대를 통한 공정한 행정처분을 도모하고 시민(단체)의 법률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 포천 Law-School을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소송 실무 ▶조례사항 이야기 등을, 시민을 대상으로는 생활법률 특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8~9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7급 이하 공무원 대상 및 시민(단체)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과정은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포천동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교육이후 교육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법률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8 포천 Law-School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하며 생활법률과정은 시청대강당과 포천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 ▶9월16일 09:00~12:30 민법 이론과 실무(소송규 대진대 교수)
- ▶9월16일 14:00~18:00 행정법 이론과 실무(변무용 대진대 교수)
- ▶9월17일 09:00~12:30 자치법규 입안론(김기선 한국법제연구원)
- ▶9월17일 14:00~18:00 소송실무(구성진 변호사)
- ▶9월24일 14:00~17:00 생활법률교육(시청대강당, 김도현 대진대 교수)
- ▶9월22일 09:00~12:30 민법 이론과 실무(소송규 대진대 교수)
- ▶9월22일 14:00~18:00 행정법 이론과 실무(변무용 대진대 교수)
- ▶9월23일 09:00~12:30 자치법규 입안론(김기선 한국법제연구원)
- ▶9월23일 14:00~18:00 소송실무(구성진 변호사)
- ▶9월25일 14:00~17:00 생활법률교육(포천동주민자치센터, 김도현 대진대 교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운영

포천시, 시민만족 법무행정 구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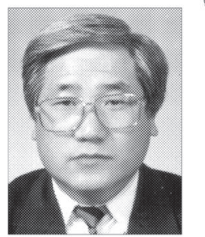
포천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해 시민만족 법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1999년1월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는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해 포천시 자치법규시스템 상담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상담은 권종철, 김제동, 이주형 변호사가 맡고 상담대상은 포천시



포천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해 시민만족 법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 단상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영광의 메달

이번 29회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남녀의 건 아이들이 역대 최고의(금메달13개 세계7위)의 성적으로 금의 환향(錦衣還鄉)했다. 자랑스런 우리의 건아들을 보면서 영광에 앞서 저들의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영점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달리고 달린 결과가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크다. 정치, 문화, 예술, 인격에까지 이 훈련과 연습은 매우 귀하다. 패테레프스키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다. 그러나 '위대함'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는 한 개의 소절(小節)을 수십 번 되풀이하며 정확하게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다. 그의 연주를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당신은 천재입니다"라

고 칭찬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천재가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한 것뿐입니다." 연습은 이렇게 천재성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연습은 기술분야 뿐만이 아니라 인격도야에 도 많은 연습을 쌓아야 한다. 참는 연습, 이해하려는 연습, 남의 말을 잘 들어보려는 연습, 고운 말을 쓰는 연습, 경건의 연습,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전제 분위기에 조화시키려는 연습 등 나의 인격을 다듬고 훈련하는 노력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의 메달도 만들어 질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디모데 전서 4장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교훈 하신다. 문의) 031-532-2489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⑩

노인의 여가 생활 고찰 및 노인 여가 복지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의 어르신들은 과거 산업화 사회를 거쳐오면서 여가 생활보다는 일에 얽매어 살아왔고 지금에 와서는 풍요로운 생활보다 건강과 또는 노후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한국적인 특성에서 오는 요인도 있었고 갑작스런 변화에서 오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어르신들의 생활이 단순히 의식주에만 그친다면 그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어르신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보호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요컨대 노인복지는 단순한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안정, 사회적 욕구가 조화적으로 충족되고 사회적 생활과 활동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삶의 만족감과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제3의 시기(the third age)'라 일컫어지는 노년기

의 증가는 여가 시간의 확장을 가져와 노년기 여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 관련된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며, 생의 의욕에 직결되므로 어르신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여가활동은 곧 노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심사라 하겠다. 노년기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하여 21세기 새로운 과제인 하나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 여가 시간을 보람 있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카플란(M. Kaplan)은 '여가는 경제적으로 자유시간의 영역에 속하며, 참여자에 의하여 여가로 인식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의무와 노력을 포함하여 자

기개발을 하게 되고, 또한 타인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자율적 활동경향'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어르신들은 자발적 여가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을 강요당하는 무의미한 불가피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유용하게 채워가지 않는 한 노년기는 무위 및 고독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노년기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가정 내에서 정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친척, 친구방문 등 단순모임 등을 주로 하는 편이다. 또한 화투, 장기, 바둑, 신문이나 책보기, 경로당, 노인학교 등 노인들 간 담소를 나누는 등 개인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최근 들어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다소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노인들은 비용이 적은 극

히 제한적이고 단순한 활동을 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전국조사(김익기 외, 1999)에서 노인들이 월1회 이상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것은 라디오 청취와 TV 시청으로 월1회 이상이 96.7%,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친구나 친척과의 만남과 친목 동창회 모임 등의 모임활동이 58.6%,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 참여가 55.2%, 술이나 차 마시기가 42.8%, 장기·바둑·화투 등 놀이 및 오락이 41.3%로 나타났다. 이외 종교 활동(32.9%), 스포츠 활동(20.6%), 취미 활동(15.3%)에도 상당히 참가하고 있는 반면 학습(5.8%), 여행(5.6%), 사회봉사활동(4.5%), 문화 활동(1.6%)은 참여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한편, 여가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 건강문제(41.6%)가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 비용 부족(20.6%), 장소나 시설 부족(16.8%), 정보나 지식의 부족(4.8%)순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인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은 "노년기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하지만,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에 따라 욕구가 다양화되고, 젊은 노인층일수록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기를 희망하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유용한 자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의 여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 여가 관련 고령친화산업 육성(여가문화시설의 확충), 노인 여가 전문가 양성, 노인 여가 기회에 대한 평준화 유지(지역별 형평성 제고), 노인 여가 홍보 및 교육, 노인 여가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책으로 노인 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건/사/고

인삼 상습 절도 4명 검거

포천경찰서, 인삼밭 상습 절취 혐의

포천경찰서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포천,철원,연천 등 인삼밭에 식재되어 있는 인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의 강모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인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고무줄 새총에 남탄을 장전 발사하고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은 2005년8월부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김 모씨 소유 인삼밭에서 미리 준비한 고무줄 새총에 남탄을 장전하여 인삼을 절취한 혐의 1회 범행을 자백 받고 집합 수색하여 고무줄 새총, 망원경, 인삼개는 도구와 장물범, 수범으로 포천, 연천, 파주 등지에 도합 39회에 걸쳐 1억6천 만원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인삼을 절취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미리 준비한 고무줄 새총에 남탄을 장전하여 얼굴을 향하여 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각목으로 폭행을 가하는 수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포천경찰서는 추석절 전후하여 인삼도둑이 발생하여 한수이북 등일수범 전과자 7명을 발췌 수사하여 피의자의 집에서 장물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궁하여 1회 범행을 자백 받고 집합 수색하여 고무줄 새총, 망원경, 인삼개는 도구와 장물범, 수범으로 포천, 연천, 파주 등지에 도합 39회에 걸쳐 1억6천 만원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사제보 광고문의 ☎031) 542-1506,7

2008 제7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 **개최목적** : 초등학생, 중·고 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백일장대회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문학의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삶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문인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 **주관** : 제7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운영위원회
- **후원** :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교육청, 포천예총, 포천신문, 제3의문학
- **행사일시 및 장소**
2008년 9월 26일(금) 오후1시~4시 (우천시도 진행) / 포천반월아트홀 광장
- **대회종류**
1) 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
2) 종목: 운문, 산문
- **참가자격**
1) 학생: 관내 초,중,고교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2) 일반: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 및 포천시 거주 주민
- **참가비** : 없음
- **준비물** : 필기구(※원고지는 주최 측에서 당일 배부할 것임)
- **시 제** : 현장에서 대회당일 발표
- **시 상** : 입상 등급에 따라 포천시장, 포천시회의회장, 경기도포천교육장, 포천예총회장, 포천문인협회장상 시상 및 상품을 시상함.
- ※ 장원이나 다수의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2명 선정)에게는 시상 또는 교육장 표창을 시상하며 입선작품은 책자 「포천 글사랑」에 수록 발행.

- **심사위원** : 문인협회 소속 교수 및 등단 작가들로 구성 엄정심사.
- **시 상 식**
1) 일시: 2008년 10월 말 예정(추후 통보)
2) 장소: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
* 기금적 단체(학교)별로 담당교사의 인솔을 부탁드립니다.
- **대회 관련문의 및 접수**
1) 포천문인협회 이종희 회 장 : 016-309-5400
김선진 사무국장 : 010-2788-3570, sjkim2415@hanmail.net
2) 포천예총(포천문인협회): 전화 : 031-531-8181, 전송: 031-532-8240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장 이종희